

MEK 대체 과도기 “진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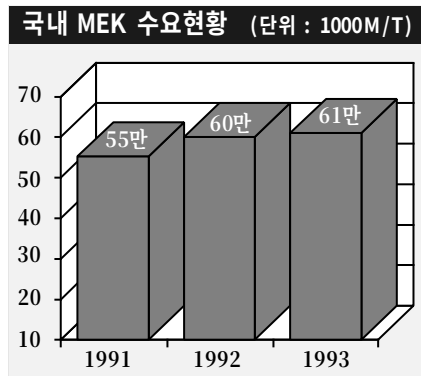
단기 가격폭등 · 장기 수급불균형 … 환경문제로 사양길

용제 베이스인 MEK가 사양길에 접어든 세계적 추세와는 달리 국내시장은 MIBK를 빠른 속도로 잠식하고 있는 가운데 제품대체 과도기에 나타나는 가격상승과 수급불균형의 양극현상이 빚어질 전망이다.

93년 MEK의 세계 물동량 보면, 일본의 Maruzene이 1만5922톤, Tonene이 1만1522톤, Idemitsu 1만829톤, Shell 1만4610톤, Condia 5716톤, Celanese 3065톤 등 모두 6만1664톤으로 집계됐다.

이는 91년 5만6000여톤, 92년 6만1700여톤에 비해 소폭 오르거나 정체된 것으로 환경규제로 인한 전 세계적인 물동량 감소를 반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세계적 물량감소 추세와는 달리 환경문제에 무감각한 반응을 보이며 지난 93년 초 톤당 500달러까지 하락했던 MEK가격이 고가의 MIBK수요를 잠식하면서 부터 93년6월에는 550달러, 9월 600달러, 12월 650달러 급기야 지난 1/4분기에는 700달러까지 폭등하는 등 분기당 50달러 이상 높은 상승폭을 나타냈다.



MEK 수입추이 (단위 : M/T)				
기업	1991	1992	1993	
Maruzene	15,618	15,500	15,422	
Tonene	14,737	15,500	11,522	
Idemitsu	9,680	11,000	10,829	
Shell	11,853	14,520	14,610	
Condia	1,010	2,000	5,716	
Celanese	2,900	3,200	3,065	
합 계	55,798	61,720	61,664	

특히 92년말부터 93년까지 계속된 영국 · 프랑스 · 브라질 등 해외 생산기업의 공장 폐쇄로 실생산량 감소가 뚜렷해지면서 국내시장의 가격 상승을 부추기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이밖에 유럽 · 미국 등 선진국의 수요가 감소하고 있는데 반해 동남아 시장은 중국이 월 1500톤 규모로 92년에 비해 1000톤이상 수요가 증가했으며, 인도네시아도 92년 월 600톤에서 1000톤 수준으로 급성장 하는 등 동남아시아의 가격상승 요인이 국내시장을 자극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단기적 가격상승에 비해 MEK시장의 장기추세는 가격폭등 이후 조정국면에서 환경문제로 인한 수급 불균형이 초래될 것으로 보이는 등 올 3/4분기를 기점으로한 아세톤 MIBK로의 수요대체가 활발히 이뤄질 전망이다.

더우기 MEK의 유독성으로 현재보다 더욱 강력한 규제수단이 등장, 국가간 물량이동마저 어렵게 되는 등 해외 생산기업들의 신 · 증설 계획이 전면 취소되거나 기존공장의 폐쇄가 잇따르고 있어 수요대체의 불가피함을 입증하고 있다.

저급의 아세톤 대체의 경우, 두림화성 · 덕성 · 송원산업 등 우레탄 생산기업들이 각 기업별로 50~100톤 정도의 대체를 이미 진행하고 있으며, 93년에는 이같은 추세에 따라 아세톤 수요가 5만 5000톤으로 7000톤 늘어나는 등 전년대비 25%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국내 수입상들도 MEK가격이 현재까지의 상승 분위기를 타고 톤당 800달러선까지 폭등할 경우 톤당 870달러 수준의 MIBK로의 대체가 불가피하다고 인식, 과도기에 접어든 MEK시장의 열기를 고조시키고 있다.